

보고서: 거창대학, 창원대학교, 남해대학 통합 관련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의 입장 및 제안

발행일: 2024년 11월 12일

발행처: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

서문

현재 한국의 대학들은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는 지역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 곳을 선정하여, 각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거창대학과 같이 타 대학과 통합할 경우 2,000억까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될 경우의 이점:

- 재정 지원 강화:** 선정된 대학은 5년간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과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혁신 촉진:**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인사 개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 지역 발전 기여:** 지역 산업 및 문화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완화 혜택:** 대학 설립·운영 요건 완화, 정원 조정 자율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지원 부족:**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경쟁력 약화:** 혁신 기회를 놓쳐, 학생 모집과 연구 역량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발전 기여 한계:**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생깁니다.
- 규제 완화 혜택 미적용:** 규제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해 대학 운영상의 제약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많은 대학들이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 간 통합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 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 거창대학, 경남도립 남해대학의 통합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대학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상생을 위해 **통합 자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절차와 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통합 이후에도 거창대학의 독창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 사항을 제시합니다.

제안 사항

1. 통합 이후 양질의 교육 보장

거창대학 통합 이후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비율을 유지한다면 교육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수 인력을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비의 충분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교수진의 연구 역량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 **연구소 설립**을 통해 거창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제안:

- 교수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을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교수와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 통합 이후 **연구비를 현재 대비 최소 20% 이상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연구비 증액은 교수진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거창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소**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구소는 지역 기업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R&D(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내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창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정주형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학 명칭에 대한 논의 필요

거창대학은 **거창군민들의 자부심**이자 교육도시 거창의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합 후 **대학 이름**이 창원대 거창캠퍼스로 바뀌는 것은 거창군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안:

- 통합 후 대학 명칭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립 거창대학 글로컬 창원대학", "창원대학교 거창대학" 등 다양한 명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군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명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동일 학과 통합 논의 필요성

현재 통합 계획에서는 창원대학교, 거창대학, 남해대학의 **동일 학과 또는 유사 학과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창원대로의 흡수 통합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됩니다.

제안:

- 동일 학과는 **하나로 통합하여 각 대학의 주력 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원대 간호학과(정원 35 명)와 거창대 간호학과(정원 75 명)를 거창대 간호학과로 통합하여 거창대에 두고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 만약 학과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각 학과의 역할 분담 및 특성화를 통해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거창 캠퍼스 소멸 우려 해소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통합 이후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거창 캠퍼스의 소멸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안:

- 통합 문서에 "거창 캠퍼스 학생을 창원대학교로 흡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 거창 캠퍼스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와 학사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특화 학과를 신설하여 학생 유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5. 거창대학의 독창성 유지 방안

거창대학은 전문대학으로서 **특화된 교육과정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후에도 이러한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

- 거창대학의 강점인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특화 학과**를 강화해야 합니다.
- 거창군의 특색을 반영한 **신규 학과 개설**과 기존 학과의 특성화를 통해 거창대학의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만학도 교육 기회 보장

거창대학은 지역 주민과 만학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통합 후에도 이러한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안:

- 2년제 학과를 유지하고, 성인 학습자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 만학도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녁반, 주말반 등을 개설하여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7. 거창군민 의견 수렴 및 반영

통합 과정에서 거창군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안:

- 정기적인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대학 운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 이후에도 군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8. 예산 편성 비율의 투명한 논의

통합 후 예산 편성 비율에 대해 투명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각 캠퍼스의 규모, 필요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제안:

- 예산 편성에 있어 캠퍼스별 재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재정 분석을 통해 공정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대학의 발전과 통합된 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위의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거창대학, 창원대학교, 남해대학의 통합이 **상생과 발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창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거창대학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된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앞으로도 거창대학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군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